

안산시 수소도시 추진 계획

박규진

안산도시개발 수소시범도시사업 신규사업본부장

안산시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수소시범도시는 주요 주거·교통수단을 수소에너지로 가동하며, 지역특화산업과 혁신 기술육성 등을 접목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안산시는 구체적인 수소도시계획이 포함된 기본설계 등을 마련하여 22년말까지 해당지역을 수소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서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수소생산 및 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반월산업단지에 수도권 유일의 수소생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안산 대부도 시화방조제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가 있어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있다.

안산시는 주거, 상업, 공공 등 용도를 감안하여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승용차 이외에도 버스,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를 위한 충전소도 계획하고 있다. 수소시범도시에 배관을 매설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소를 공급하고,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원격감시, 현장순찰 등 24시간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전망이다.

안산시는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주거, 교통 등 전 분야에 수소활용을 실증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수소사회를 기대하고 있다.